

온라인자살유해사이트의 실태와 역할에 대한 연구 : 모니터링을 통한 심리적 분석

장 창 민 (연세대학교대학원 박사과정, 한국자살예방협회)

I. 서론

우리나라는 뒤늦게 정보화 사회에 들어섰지만 빠른 속도로 정보화가 되었으며 이제는 초고속인터넷 사용률 세계 1위인 국가가 되었다. 이제 인터넷은 생활의 일부분이 되었으며, 인관관계 형성의 통로일 뿐만 아니라, 사회를 살아가는 중요한 도구가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중요성 못지않게 그 역기능 또한 큰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인간의 생명을 담보로 벌어지는 자살 유해사이트는 그 자체만으로도 심각한 문제일뿐만 아니라 이로 인한 생명의 존엄성과 생명윤리의 상실 등과 같은 문제들은 또 다른 문제들을 양산할 수 있는 위험요소라고 할 수 있다.

더욱이 자살 유해사이트들이 자살의 방법을 자세히 소개한다거나 독극물의 유통경로 또는 이에 필요한 정보를 교환하는 등 자살 방법, 도구, 사유, 패담 및 경험담, 유품경매, 동반자살 구인, 체험공유, 자살사이트 소개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실정에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의 목적은 온라인 자살 유해사이트의 실태와 기능에 대해 알아보고 모니터링 방법에 대해 파악함으로써 우리사회의 생명존중정신의 구현과 자살예방을 위해 온라인 자살 유해사이트의 심각성을 알리고 또한 모니터링이 어떠한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며 효과적인 모니터링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하는 물음에 대한 모색이라고 할 수 있다.

II. 온라인 자살 유해사이트의 개념과 실태

1. 자살 유해사이트의 개념

‘유해하다’는 말은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판단일 수 있으며, 사회적, 문화적 또는 역사적인 입장에 따라 다양하게 전개될 수 있으므로 유해라는 것을 규정짓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실제로 “무엇이 유해하냐?”라는 개념은 도덕적 신념과 가치, 정치적, 철학적 지향에 따라 좌우되기 때문에 상당히 양극적이고 이데올로기적인 성격이 강하다(Donnerstein, Linz & Penrod). 그러므로 유해사이트에 대한 개념에는 주관적인 의도를 중요시하느냐 객관적인 경향을 중요시하느냐하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자살 유해사이트라는 개념은 그나마 어느 정도는 그 개념이 한정되어 질 수 있다고 본다. 그러므로 자살 유해사이트란 “자살을 조장 및 권장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된 글이나 정보를 게시함으로써 개인과 사회에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사이트”라고 개념화 할 수 있겠다. 이상과 같이 살펴본 자살유해사이트라는 개념을 바탕으로 다음에서는 온라인 자살 유해사이트의 실태에 대해 살펴보겠다.

2. 온라인 자살 유해사이트의 실태

온라인 자살 유해사이트가 사회적인 문제로 인식되기 시작한 것은 불과 최근의 일이라고 할 수 있다. 2000년 말 인터넷 사이트를 통한 동반 자살 및 청부 자살 사건(한겨레신문, 2000. 12. 15 “자살이 생각날 때”)으로 자살 유해 사이트가 심각한 문제로 인식되었으며, 이러한 자살사건 이후 모방 자살에 대한 우려 역시 큰 사회 문제가 되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자살 유해사이트에 대한 규제로 인하여 표면적으로 드러난 경우는 많지 않으나 가까운 일본의 경우에는 경제적 불황과 더불어 자살률이 현저하게 증가하면서 인터넷을 통해 자살에 대한 계약을 맺고 실제 자살을 시도하는 사례들을 상당수 찾아 볼 수 있으며 그 방법 또한 매우 구체적으로 공개되어 있다(Faiola, 2003). 하지만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자살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 뿐 만아니라 자살을 위한 약물에 대한 유통 및 자살 도우미까지 등장한 실정이다.

2000년 12월에는 인터넷자살사이트를 통해 동반자살을 하는 사건이 처음 발생한 이후, 투신자살, 촉탁살인 등이 발생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청산가리 등의 독극물을 구입하여 자살을 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또 다른 자살 유해사이트로는 살인청부사이트가 있다. 이곳에서는 살인범죄 실행에 관한 정보, 청부 유형별 가격, 경비 지급방법 등의 정보

를 제공하고 있으며 주로 이메일을 통해 살인청부를 의뢰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주지홍, 2003). 더욱이 온라인상의 유해환경은 청소년들의 정서를 자극하고 정체성 형성에 혼란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극단적인 상황에 노출시키는 위험한 요인이 되고 있어서 이들의 정서발달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Ⅲ. 온라인 자살 유해사이트 모니터링

본 장에서는 한국자살예방협회의 “온라인 자살 유해사이트 모니터링 사업”에 대한 자료를 기반으로 자살 유해사이트 모니터링의 현 주소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1. 연구 방법

2005년 10월 14일부터 2006년 9월 30일까지 총 350일 동안 주요포털사이트(다음, 네이버, 야후 등)와 일반 개인 및 회사 홈페이지 및 게시판을 모니터링 대상으로 검색을 실시하였다. 이와 같이 모니터링을 통해 발견된 원자료를 단순 빈도분석을 통하여 유형별, 내용별 그리고 조치현황별로 분류하였으며 역할과 기능에 대해 심리적 분석을 하였다(모니터링 절타는 지면관계상 생략하였음).

2. 모니터링 결과

1) 자살유해사이트 유형에 따른 신고 및 분석

표 1 온라인 자살유해사이트 유형에 따른 신고현황 분류

| 유형 | 신고기관 | 정보통신 윤리위원회 | 경찰청 | 다음 | 네이버 | 야후 | 다모임 | 기타 | 계 |
|------------|------|---------------|-----|----|-----|----|-----|----|-----|
| 자살사이트 | | 8 | 1 | 3 | 6 | 1 | 0 | 0 | 19 |
| 자살카페 | | 8 | 8 | 15 | 4 | 0 | 0 | 0 | 35 |
| 지식 검색(게시물) | | 9 | 0 | 12 | 51 | 59 | 9 | 1 | 141 |
| 블로그 | | 0 | 0 | 28 | 46 | 2 | 4 | 0 | 80 |
| 유해물질판매자 ID | | 0 | 0 | 10 | 62 | 31 | 0 | 2 | 105 |
| 총 계 | | 25 | 9 | 68 | 169 | 93 | 13 | 3 | 380 |

온라인 자살유해사이트 모니터링 결과(표 1) 총 380건이 적발되었다. 이를 유형별로 분류해 보면, 자살사이트가 19건(5%), 자살 카페가 35건(9%), 지식검색(게시물) 141건(37%), 블로그 80건(21%) 그리고 유해물질 판매자 ID신고는 105건(27%)으로 나타났다. 여기서 지식검색(게시물)과 블로그 그리고 유해물질 판매에 대한 게시물이 전체의 86%를 차지했다.

이를 신고 기관별로 분류해 봤을 때, 정보통신위원회에 신고 된 경우가 25건(6%), 경찰청이 9건(2%), 포털사이트 다음 68건(17%), 네이버 169건(44%) 야후 93건(24%), 다도입 13건(3%) 그리고 기타가 3건(0.8)으로 총 380건이 신고 되었으며, 이중 13건은 처음 신고를 통해 사이트 폐쇄가 안 되어 재신고조치가 이루어졌다.

2) 자살유해사이트 내용 따른 분석

표 2 온라인 자살유해사이트 내용에 따른 분류

| 내용 | 자살방법 문의 | 자살방법 소개 | 유해물질 구매 | 유해물질 문의 | 이미지 및 동영상 | 자살사이트 문의 | 기타 | 총 계 |
|----|---------|---------|---------|---------|-----------|----------|----|-----|
| 건수 | 37 | 12 | 9 | 13 | 21 | 3 | 5 | 100 |

온라인 자살유해사이트 모니터링을 통해 적발된 380건 중 최근에 적발된 최근 100건을 내용에 따라 분석해보았다(표2). 이를 살펴보면, 자살방법에 대한 문의가 37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는 자살과 관련 이미지 및 동영상이 21건 발견되었다. 자살 관련 이미지 및 동영상 중에는 학생들이 직접 제작한 자살 묘사 동영상 5건, 실제 자살 장면에 대한 영상 4건이 발견되었다.

분류된 내용을 자살방법과 유해물질에 대한 범주로 묶었을 때, 자살방법(문의, 소개) 49건, 유해물질(구매, 문의) 22건으로 전체 71%를 차지하였다. 이는 온라인 자살유해사이트 이용자가운데 단순한 호기심에 의한 방문자보다는 어느 정도 자살을 생각하고 위험자가 상대적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을 엿볼 수 있다.

이밖에 기타에는 자살(동반자살) 희망자 모집 1건, 자살 예찬 2건, 자살자 처리 방법 1건, 자살용 폭탄 제조방법 1건이 발견되었다. 이제 온라인 자살유해사이트가 단순한 호기심이나 방문의 정도가 아니라 직접적인 행동의 수단과 표현의 방법과 모의로 이용되고 있다는 점에서 자살에 대한 문제뿐만 아니라 자살을 매개로 한 범죄에도 심각하게 노출 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3) 조치현황

표 3 온라인 자살유해사이트 조치 현황 및 분석

| 신고기관 | 정보통신 윤리위원회 | 경찰청 | 다음 | 네이버 | 야후 | 다모임 | 기타 |
|------|---------------|-----|------|------|------|-----|----|
| 조치기간 | 28일 | 7일 | 2.3일 | 2.1일 | 1.3일 | 0일 | 4일 |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는 자살사이트의 경우 6건의 신고가 처리 되었고 2건이 미처리 되었으며, 자살카페의 경우 5건이 처리 되었고 3건이 미처리 되었고 지식 검색(게시물)은 9건이 미처리 되었다. 이와 같은 모든 조치가 이루어지기까지 28일의 기간이 걸렸으며 총 25건 중 9건(36%)이 처리되었다.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의 경우에는 자살사이트 1건, 자살카페 8건 총 9건을 신고 및 접수하였으나 모두 미처리되었다.

다음 권리침해신고센터에는 자살사이트 3건은 모두 처리되었으며, 자살카페는 15건 중 1건, 지식검색(게시물)은 12건 중 3건, 블로그는 28건 중 20건, 유해물질판매자 ID는 10건 중 4건이 미처리 되었다. 이상 총 68건이 신고 되었으며, 이중 40건(58%)이 처리되었으며 조치기간은 평균 2.3일이 소요되었다.

네이버 권리침해신고센터의 경우에는 자살사이트 6건, 자살카페는 4건 모두 처리되었으며, 지식검색(게시물)은 51건 중 6건, 블로그는 46건 중 4건, 유해물질판매자 ID는 62건 중 2건이 미처리 되었다. 이상 총 169건이 신고 되었으며, 이중 157건(92%)이 처리되었으며 조치기간은 평균 2.1일이 소요되었다.

야후 신고센터의 경우에는 자살사이트 1건, 블로그 2건, 유해물질판매자 ID 31건 모두 처리되었으며, 지식검색(게시물)은 59건 중 1건이 미처리 되었다. 이상 총 93건이 신고 되었으며, 이중 92건(99%)이 처리되었으며 조치기간은 평균 1.3일이 소요되었다.

IV. 온라인자살유해사이트의 기능 및 역할에 대한 심리적 분석

본 장에서는 온라인 자살 유해사이트를 생성하는 사람들과 방문하는 사람들 사이의 동인을 알아보고자 상호작용적인 기능과 역할 차원에서 분석해 보았다. 특별히 본 분석이 자살 유해사이트의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부분을 부각시키고자하는 것이 아니라 온라인 자살 유해사이트라는 현상 뒤에 있는 궁극적인 동인을 찾기 위한 분석임을 강조한다.

1. 사회적 금기 탈피의 장

일반적으로 우리 사회에서 ‘죽음’이란 두려운 것으로 여겨지고 있으며 더군다나 ‘자살’은 끔찍한 일로 치부되고 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살아야 한다는 생각이 지배적인 현대 사회에서는 더욱 그러하다. 그렇기 때문에 자살에 대한 충동을 느낀다고 하더라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러한 감정을 표현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자살 사이트는 이러한 속앓이를 표현할 수 있는 장일뿐만 아니라 자살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와 방법을 알 수 있는, 방문자들에게 ‘현실적인 자살’을 보여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온라인 자살 유해사이트는 유해한 정보만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금기시되어 있는 자살 문제를 주관적이고 개인적인 시각에서 표현할 수 있는 장의 역할을 하고 있으며, 이러한 장은 ‘자살’ 뿐 아니라 ‘삶’에 대해서도 깊이 인식해보는 기회가 되기도 한다. 하지만 이러한 기회가 모든 이들을 “자살”이라던가, 또는 “살아야겠다”는 의지 등 어느 쪽으로 이끈다고 말하기에는 어려움이 많다. 그러나 표현되지 못한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장으로서 자살 유해사이트는 자살에 대한 생각을 더욱 강화시킬 수 있으며, 자살 시도를 권고하는 역할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살자체를 미화시킬 수 있는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

2. 사회 학습의 장

Bandura(1977)는 일찍이,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행동을 관찰하는 것으로도 학습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모방 학습에 대한 그의 실험적 연구(Bandura, 1963)는 공격적인 모델을 본 아이들이 다른 아이들보다 훨씬 더 공격적인 행동을 하였음을 보고하였다.

이와 같이 자살 유해사이트는 자살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과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일반 방문자들의 호기심을 자극할 뿐만 아니라 자살을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자살에 대한 장면이나 구체적인 노골적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극단적인 방법에 이르도록 유도하는 활성화기능을 할 수 있다. 더욱이 이러한 유해 사이트는 자살을 생각하지 않았던 사람들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높은 학습효과를 가지고 올 수 있는 학습의 장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다.

3. 의미 연결고리의 장

특정한 개념이나 범주들 그리고 특정 사건에 대한 기억의 흔적들은 고리들의 연결로

표상이 된다고 한다(Collins & Loftus). 이러한 연결 고리들은 명제의 형태로 변형되어 저장되는 과정에서 서로 의미론적으로 가까운 연결 고리들끼리 더 강한 통로를 지니게 된다. 따라서 어떠한 이유로 한 개의 연결 고리가 활성화되면 그 주변의 연결들에게도 이 활성화 효과가 전달되게 된다.

온라인 자살 유해사이트에는 죽음과 관련된 다양한 자료들뿐만 아니라 그 내용 자체로도 충분히 자극적이다. 이처럼 삶과 죽음이라는 인간의 궁극적인 물음과 관련이 있는 내용들을 접하게 될 때, 자살에 대한 생각이 없었던 방문자라 하더라도 그들의 삶 가운데서 고통과 어려움을 겪게 되는 순간에 죽음과 의미적으로 관련이 있는 의미의 고리로서 자살을 더 강한 통로로 생각하게 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여주게 된다.

4. 관계와 공감의 장

인생의 주체로서 ‘나’는 필연적으로 ‘타자’와의 관계 속에 얽혀있다. 인간은 원천적으로 관계 지향적이다. 정신분석학자인 프로이트(Freud)는 자살에 대한 심리적 통찰을 처음으로 제시하였는데, 인간의 대상부착(object-cathexis)과 대상관계(object-relation)가 자살 충동과 밀접한 연관이 있음을 밝혔다. 후기에 그는 자살을 우울증과 연결시킴으로써, 대부분의 자살자들이 우울증적인 정신상태를 지니고 있다고 보았다. 또한 대상관계이론가들은 자살충동의 배후에 대상상실(애인, 직장, 이념 등), 대상에 부착된 리비도의 퇴행이나 상실된 대상과 자아의 동일시와 같은 과정이 숨어 있다고 말한다.

프랑스의 사회학자인 에밀 뒤르켐(Emil Durkheim, 1897) 역시 “자살론”(Le Suicide)에서 자살이 개인적 행위로 보이지만 사실은 사회의 특정한 상태를 반영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많은 연구 결과들을 보면, 자살할 의도가 있었던 사람들은 자신들의 자살 의도를 타인에게 대부분 이야기 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몰래 혼자 결심하고 몰래 죽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전우택, 2004).

이와 같이 자살유해사이트는 자살 고위험자들에게 자신과 같이 자살에 대해 생각하고 고민하는 사람들과의 만남의 장이 되고 있으며, 다른 사람에게 말 할 수 없었던 이야기를 공감 받을 수 있는 장이 되고 있다. 최근 자살 유해사이트가 자살에 대한 방법이나 유해물질에 대한 문의 및 소개에 대한 글들이 급속하게 늘어나고 있는 점이 이러한 ‘관계와 공감의 장’으로서의 기능이 강화되고 있다는 점과 함께 대부분의 이용자들이 이러한 “관계와 공감”을 갈망 한다는 점 또한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5. 사회적 지지의 장

사람들은 내가 필요로 할 때, 의지할 수 있는 대상을 찾게 된다. 이러한 인간의 욕구들은 정서적 지원과 정보의 제공 그리고 실질적 자원의 제공이라는 사회적 지지를 통하여 만족감을 얻게 된다. 이렇게 지각된 사회적 지지는 스트레스에 대한 평가에 작용하여 스트레스 평가를 예방해주기도 하고, 행동적 대처의 단계에서 작용하여 스트레스에 대하여 재평가하게 하고 적응적 대처 행동을 추진하게도 하는 매우 중요한 심리적 자산이다(송종용, 1988; Cohen & Wills, 1985; 문성원, 2003 재인용).

온라인 자살 유해사이트는 가까운 사람들에게 말할 수 없었던 죽음과 관련된 생각을 인터넷의 익명성이라는 특성을 통하여 글을 올릴 수 있고, 어느 누구라도 손쉽게 답변을 달아 줄 수 있으며, 개인적인 방법으로 이메일을 주고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서로가 원한다면 직접 오프라인을 통해 필요한 것을 얻을 수 있다는 온라인상의 특징은 사회적 지지의 중요한 역할들이 자살 유해사이트를 통하여 충분히 충족될 수 있다고 하겠다.

V. 결론 및 제언

‘2005년 사망원인통계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OECD국가 중 자살률 1위이며 지난해 하루 평균 33명이 자살을 했으며 이는 43분마다 1명 자살을 한 실정이다. 이는 전체 사망원인 중 자살이 9위(1995년)에서 4위(2005년)까지 끌어 올렸다. 이러 실정에서 최근 자살과 관련된 기사들 중에서도 인터넷 자살사이트를 통한 유해물질 구입 및 동반 자살에 대한 내용이 자주 보도되면서 자살 유해사이트 및 동반자살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본 연구를 통하여 온라인 자살 유해사이트의 현황과 실태 그리고 그 심각성에 대해 살펴볼 수 있었다. 이제 자살 유해사이트는 단순히 자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자살 조장사이트 수준을 넘어서 자살을 권장하며, 유해물질을 유통 및 판매하는 역할 뿐만 아니라 살인을 청부하고 촉탁하는 등의 심각한 사회 문제를 야기하는 범죄의 온상이 되고 있는 실정이라는 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그러나 실제 자살사이트 및 유해정보로부터 일반인들의 접근제한은 포털사이트의 관련어 검색차단 등의 수동적 활동에 국한되어 있다. 또한 자살 유해사이트의 활동 및 유해정보 현황에 대한 정확한 실태 파악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 실정이다.

본 연구를 통하여 온라인 자살유해사이트의 심각성만을 부각시키고자하는 것은 아니

다. 무엇보다도 이제는 자살 유해사이트 모니터링도 단순한 검색 및 차단 기능을 넘어서 온라인 자살유해사이트를 생성하는 입장과 방문하는 입장 사이의 상호작용 현상을 이해하고 현상 뒤에 숨어있는 동인을 찾고자하는 것이 더 근본적인 목적임을 강조하고자 한다. 이제 온라인 자살유해사이트를 적발하고 차단하는 역할 뿐만 아니라 자살 유해사이트들이 가지고 있는 ‘사회금기 탈피의 장’, ‘사회학습의 장’, ‘관계와 공감의 장’ 그리고 ‘사회적 지지의 장’이라는 기능을 대체할 수 있는 역할방안을 모색할 수 있어야 하며, 자살 유해사이트를 방문함으로써 오히려 자살을 포기하게 되는 등의 순기능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좀 더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모니터링을 통하여 생명 존중 및 자살 예방 활동을 전개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즉 이제 온라인상의 복지시스템에 대해서도 숙고해야 할 때라고 할 수 있다.

참 고 문 헌

- 문성원.(2002). 인터넷 자살 사이트에 의해 매개된 자살. 한국심리학회 : 상담 및 심리 치료, 14(2), 461-485.
- 박형민.(2005). 인터넷 유해사이트의 실태와 대책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유영권. 1996a. “대상관계 심리학과 목회상담 (1)”. 『기독교 사상』 제40권 제9호.
- _____. 1996b. “대상관계 심리학과 목회상담 (2)”. 『기독교 사상』 제40권 제10호.
- 정보통신윤리위원회.(2005). 2005 심의 자료집.
- 전우택.(2004). 자살의 정신의학적 예측과 전망. 한국임상목회교육협회 공개강좌. 8-9.
- 전자신문.(2003. 10. 15). 청소년 60.4% “나는 사이버 중독”.
- 주지홍.(2003). 자살관련사이트의 문제점 및 대응방안. KISDI. 18-22.
- 통계청. (2006). 2005 사망원인통계결과
- Bandura, A.(1977). Social learning theory. Englewood Cliffs, NJ: Prentice-Hall.
- Donnerstein, E., D. Linz & Penrod(1987), The Question of Pornography: Research Findings and Policy Implications, NY: Free Press.
- Durkheim, E.(1897). *Suicide*. New York: The Free Press.
- Failoa, A.(2003. 8. 24). "Internet Suicide Plague Japan: Young People Make Death With Strangers", The Washington Post, p. A01.
- Greenberg, Jay R. and Mitchell, Stephen A. 1983. *Object Relations in Psychoanalytic Theory*. Cambridge, Massachusetts: Harvard University Press.

Scheeres, J. (2003). A virtual path to suicide: Depressed student killed herself with
from online discussion group. Retrieved September 1, 2003, from
<http://sfgate.com/cgi-bin/article.cgi?file=/c/a/2003/06/08/MN114902.DTL>.